

| 권두언 |

# 경사노위, 노동존중사회와 사회적 대화의 최후의 보루

사회학자인 필자는 언제부터인가 늘 ‘사회적 분위기(social mood)’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져 왔다. 사회란 존재는 늘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 그것이 모여져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것을 이데올로기(ideology)나 프레이밍(framing)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말기엔 무언가 미흡하다.

정치행위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에 그에 크게 규정받는다. 정치가들의 발언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지향을 갖지만, 사회적 분위기의 무거운 기류는 때로는 그것을 용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최근 일고 있는 80년 5월 당시 대한민국 국가가 자행한 시민학살과 그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의 경험을 일부 정치가들이 왜곡시키고 폄하시키는 발언들, 그리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역풍과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 대다수의 망언비판은 정치행위와 사회적 분위기의 관계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책과 정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진대, 정책의 기초 역시 그러한 흐름과 분위기, 무드에 영향을 주고 또 받는다. 사회적 대화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는 한편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정부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회적 행위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정부가 아무리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도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흐름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다.



**박명준**  
본지 편집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야말로 격동의 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조짐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번 1월과 2월 사회적 대화의 미래와 관련한 세 가지의 굵직한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하나는 1월 2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회의가 산회한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는 일은 재차 오리무중에 처하게 되었다.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참여의 기회는 더욱 더 흐려질 태세다.

또 하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신규법인 투자협약서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것이다. 1월 31일 당일 협약식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크게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14년부터 도모되기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모델 프로젝트가 약 5년 만에 그 구체화를 향한 획기적 지반 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마지막은 주52시간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2월 19일 노사정 간의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간 참여한 이해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최초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회적 대화기구의 입장에서 일종의 ‘진성 사회협약’의 성격을 갖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반면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 각각 노사 양측의 이해를 주창하는 세력들은 일각에서 ‘미흡하다’, ‘우려된다’는 입장들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사회적 합의가 겪어야 하는 숙명이기도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현 정부는 2018년 말에 개각을 단행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혁신’과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고용지표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조금씩 커지는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포용보다는 혁신을 더욱 강조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석된다. 이 역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이러한 속에서 필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향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앞으로 더 험난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하기에 향후 경사노위는 노동존중사회와 사회적 대화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뚜벅뚜벅 수행해가야 한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기도 했다.

말하자면 새로운 기조 하에서 자칫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듯 1월 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 안건이 제대로 결론을 보지 못한 채 끝나 버리고 말았고, 이는 그러한 기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판단을 자아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있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합의는 그러한 분위기에 반전을 기하는 사건이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질서

쇄신의 기회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우리 사회에 표출시키고 공유시켰다. 설 명절 직전에 이루어진 이러한 성취는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쇄신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뒤이어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미묘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상단체들과 정부의 핵심부처가 참여한 ‘압축적 숙의(compressed deliberation)’의 과정을 거쳐, 또다시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1월 말을 전환점으로 하여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분위기는 쇄신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느낌이다.

공교롭게도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합의 모두에서 한국노총의 결단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분명 이러한 결단은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관계의 혁신을 향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노총은 대화를, 민주노총은 투쟁을 선택했던 지난날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치의 양상으로 재차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대화와 투쟁을 둘러싼 무수한 소모적 논쟁의 늪에 다시 빠져 들어선 안 된다. 관건은 합의의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고, 합의의 결과가 얼마나 공평한 것인가, 그리고 궁극에 그것이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진보시키는 것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했는가를 객관적이고 넓게 볼 수 있느냐에 있다.

사회적 대화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연말연초의 부정적 기운은 이제 새롭게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모처럼 나타난 사회적 대화에 우호적인 사회분위기를 불씨로 삼아, 그 자체가 아직 미흡할지라도 향후 전개될 수많은 경제사회노동정책상의 다양한 현안들 및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감내해 감에 있어 사회적 대화가 보다 더 신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호는 현 시기의 미묘한 국면적 성격을 반영하여 사회적 대화의 전환과 쇄신의 교차점에서의 여러 현상과 의견들을 담고 있다. 기획대담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정책 곳곳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사회적 대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좌담은 ‘입법부와 사회적 대화기구의 바람직한 관계’를 놓고 입법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초의 노동정치를 달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인 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와 외주화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도 모아 보았다.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로 이번에는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다. 전문위원 정책스케치 코너에서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다루는 조정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그 밖에 탄력근로제 합의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합의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소식들과, 정식으로 출범한 경사노위 회의체들의 이모저모를 소개하였다.

새로운 공식적 기구에 담긴 사회적 대화.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제 1~2월을 거치며 첫술은 확실히 떴다.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탁한 기운을 정돈하고 삶의 자리를 윤택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9년 2월